

보도시점 2026. 6. 15.(월) 16:00 / 배포 2026. 6. 15.(월) 08:30

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

<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
-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12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붙임1> 현장 방문 기업 '매일유업' 일반현황

<붙임2>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말씀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태모 (044-200-4960)
		담당자	사무관	송지원 (044-200-4963)



대표자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							
설립년도	1969년							
본사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트원타워A동							
영업실적 (최근 3개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억원)	17,829		18,114		18,435		
	영업이익(억원)	722		703		600		
	영업이익율	4.0%		3.9%		3.3%		
임직원 수	1,921명							
생산공장 현황	<input type="checkbox"/> 7개 생산공장							
	구 분	평택공장	광주공장	경산공장	상하공장	영동공장	청양공장	아산공장
	설립일	'74년 5월	'73년 12월	'78년 10월	'03년 11월	'99년 12월	'02년 5월	'91년 2월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광주 광역시	경북 경산시	전북 고창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충남 아산시
	라인수	15개	11개	9개	14개	7개	10개	2개
	인원수	264명	186명	120명	205명	100명	92명	50명
	부지 면적	71,319㎡	37,159㎡	42,324㎡	75,072㎡	145,862㎡	67,177㎡	15,283㎡
	대리점 상생협력 주요 실적 (2025년)	<input type="checkbox"/> 자금지원						
○ (펀드 운영) 은행과 연계하여 대리점 대출이자 지원 약 15억 원								
○ (입점비 지원) 대리점 거래처 매대 대여비용 지원 약 2억 원								
<input type="checkbox"/> 매출확대 지원								
○ (행사할인 지원) 대리점 행사할인 진행시 공급가액 할인 약 522억 원								
○ (판촉활동 지원) 행사판촉자재 등 판촉활동 필요 물품 공급 약 38억 원								
<input type="checkbox"/> 복리후생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대리점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약 7,900만 원								
○ (명절 선물) 설·추석명절 선물 지급 약 5,100만 원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방문
2026. 6. 15.(월) 15:00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말씀

- 일 시 : 2026. 6. 15.(월) 15:00
- 장 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대리점주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장 일정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매일유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에서 대리점 거래는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식음료, 화장품,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대리점은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만 개 이상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서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주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본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계약 갱신이나 거래 조건을 둘러싼
거래상 지위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과
이자,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소비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대리점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공정위는 2015년 대리점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불공정거래관행 적발을 통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비로소 울창한 숲이 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점을 포함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은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은
공정한 소득분배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저희가 모여있는 이곳 '매일유업'은
장기계약 보장, 금융자금 지원과 같은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을 운영한 결과
2021년부터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에서
매년 최우수 등급을 받아오며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상생 우수사례가
다른 기업들에도 널리 전파되고,
대리점 분야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큰 숲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위도 규제를 넘어서
본사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더 많은 사업자들이
상생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리점법 교육·홍보 등을 통해
대리점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상생방안 마련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상생 사례는 물론,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